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2년도
제4호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세례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성화하는 힘이 작용하여
복음화를 재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19항

VOCÊ EM CASA, DO SEU JEITO, EM CRISTO



베들레헴 성 카타리나 성당에서의 부활 전야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 “숨 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150)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교회에
파견 명령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사도적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마태 10,7) 세례

와 견진성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마음을 채웠습니다.** 탈그리스도교화 되고 사실상 어느 정도 이교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안에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느님 나라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 각자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려는 열망과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일치를 이루려는 동경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의 선교의 주인공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하느님 나라의 실재가 우리에게 닫힌 채로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높게 드러났고, 개개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갈 힘을 하느님의 사랑이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힘이며 그분의 신비를 밝혀주는 십자가의 지혜를 선물합니다.**(1코린 2,1-5 참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빨리 활기를 잃고 무력하고 느슨해질 수 있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재임기간 1948-1972)가 성령강림절 강론에서 성령의 부재 결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무시며, 복음은 죽어 있는 글자이고, 교회는 단순한 단체가 되며, 권위는 지배의 한 형태이며, 선교는 선전이 되고, 전례는 주술행위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예의 도덕이 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삶의 방향을 진정으로 복음에 맞추고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에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성모님과 함께 청합시다.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영이 없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의 문이고, 이 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시대로, 사람들에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온전히 불꽃이며,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갈망으로 타오릅니다.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이 되어 온 세상을, 특별히 가장 낙후된 나라들을 돌아다닙니다. 그토록 많은 영혼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주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나는 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내적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마치 온 세상의 운명이 내게 달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선교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예수님,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제 자신을 내어줄 때 제가 사제, 선교자, 사도일 수 있고 순교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건축 지원

베들레헴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ACN이 지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노래’는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는 이 찬미 노래와 연결되었습니다. 교황은 회칙에서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천연자원을 절약하며 사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3세기부터 베들레헴 예수 탄생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이제 태양열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또한 적게 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프란치스코회의 수입이 매우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톨릭 가정 1,655세대가 속해 있는 번창하는 본당과 수도원에 그사이 전기요금이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면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몇 년 안에 결실을 보게 될 투자입니다.

그래서 ACN이 약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지에 곧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

과테말라는 수십 년 동안 폭력과 테러의 현상이었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유혈 내전이 지속되는 동안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난을 떠난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합니다.

과테말라 남서부 과달루페에 있는 과달루페의 성모 성당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 멕시코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예전의 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새롭게 삶을 구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처음에는 나무 아래에서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후 신자들은 임시 경당을 널빤지와 나무판자 몇 개로 급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경당이 생길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경당이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7개 토착 민족에 속하는 신자들은 큰 희생을 치르며 새롭고 큰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벌써 필요한 자금의 4분의 1을 모금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규모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인데 수확이 어느 때는 좀 좋았다가 또 어느 때는 나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입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고 파블로파블로 비즈카이노 프라도(Pablo Vizcaino Prado) 주교가 말합니다. 프라도 주교가 저희 ACN에게 지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헌신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당 건축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ACN이 약 3,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과테말라. 신자들이 성당의 준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

하느님을 찾도록 젊은이들을 돕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은 1995년부터 리투아니아 크레팅가에 있는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봅니다.
크레팅가에서 진행되는
신앙 워크숍.



옛 소련 국가들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가톨릭 신자가 다수를 형성하는 유일한 국가이긴 하지만 청소년 세대는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습니다. 영적 진공상태가 오늘날까지 뚜렷이 느껴지고, 대체로 부모들 자신도 신앙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이 청년 사도직 활동을 돕고자 발을 디뎠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름 캠프와 주말 과정이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삶의 의미,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적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혼인, 성과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해와 다른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 밖에 청년 사도직 분야에 활동하는 성인 및 청년 그룹 지도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확대하기 위해 강연자들을 리투아니아 자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초빙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ACN이 약 99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서로 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베네딕도회 수도자들 또한 새로운 복음화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 67명의 여성 수도자들이 소속된 8개 크로아티아 베네딕도 수녀회의 연합회 의장인 M. 베네딕타 할릴로비치 총원장 수녀는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긴장과 절제의 시간이 2년 넘게 흐른 후, 이제 코로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이 심리적 트라우마의 결과들을 만회하기 위해 교회로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은 종교적 지혜의 진정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딕도회의 영성이 거의 1,500년 전부터 수도 생활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절대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으며,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기도와 노동으로 형성하는 것, 그것들이 누르시아의 베네딕도 성인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행하여 내려온 수도 생활의 소박하고 실용적인 몇 가지 기본 규칙입니다.

베네딕도회 여성 수도자들은 이 건전하고 심오한 베네딕도 영성을 이 나라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크로아티아어로 자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팬데믹 동안에 그 의미가 크게 강화된 디지털 미디어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약 1,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현대적 미디어를 사용하는 베네딕도회 여성 수도자.



조지아

신앙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사제들이 추방당하고 살해되었고, 교회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지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랄리 마을에서 신자들은 은밀하게 낡은 경당에 모여 소련연방 시기 동안의 극심한 종교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은 한 번도 기도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징발되어 곡식 창고로 사용되기 전날 밤에 신자들은 교회에 잠입하여 구해낼 수 있는 것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에 교회가 반환되고 대규모 보수가 진행된 후, 중앙 십자가와 고대의 성상들을 본래의 자리에 다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아랄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제 성소**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ACN 대표단이 사제 서품식에 참가할 수 있었던 베카 칠링가라슈빌리 신부도 이곳 출신입니다. 또한 그의 멘토이자 영적 아버지인 주랍 카카치스빌리(Zurab Kakachishvili) 신부 역시 이곳 출신인데 그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최초의 조지아 출신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아랄리 마을은 몇백 년 전부터 이 나라의 가톨릭 신자 대다수가 사는 조지아 남쪽, 터키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대부분이 조금씩 각자의 땅을 갖고 있어서 땅이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취업의 기회가 없어 많은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한 후 아할지헤나 트빌리시 같은 도시로 떠납니다. 예전의 아랄리는 온전히 가톨릭 교우촌이었으나 지금은 4천여 명의 주민 가운데 70% 정도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혼종혼으로 인해 정교회의 수녀원과 본당도 생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곳

에서 가톨릭 신자들과 정교회 신자들 사이의 관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베카 신부는 선배 사제인, 폴란드 선교사 안드레이 그라크직(Andrzej Graczyk)과 함께 아랄리와 이웃 마을 우데, 그리고 근방의 비교적 작은 5개 마을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지역에서 가톨릭 신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목 활동을 준비하며, 신자들 역시 이런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사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본당에서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들 외에도 베카 신부는 약 45명의 본당 청년들과 함께하며 감동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청년들을 정기적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쓰러질 듯 낡은 데다가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아랄리의 겨울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무너질 것 같은 건물 계단을 주저하며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사제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이 지역 교구장 주세페 파조토 주교는 ACN에 사제들의 거처가 될 방 2개, 본당 사무실, 친교실, 청년들을 위한 대강당을 갖춘 검소하지만 쓸모있는 사목 센터를 짓기 위한 건축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조지아 가톨릭 교회의 탁월한 활동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고, 기꺼이 1억 8,2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랄리에서 지속적으로 가톨릭 공동체가 번창하고 성소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첫 미사 봉헌. 가톨릭의 새로운 세대에 축복을 주는 베카 신부.



아랄리. 옛 본당 건물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살펴보는 주랍 신부.

“우리는 하느님을 원한다!”

1949년에 폴란드의 공산주의자들은 제철산업단지를 둘러싸며 새로 건설된 근로자 도시 노바후타를 “하느님 없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인구 20만 명을 위해 계획된 이 도시에 주점과 극장들은 있어도 교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교 시골 지역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가톨릭교회의 환경을 빼앗겼습니다. 노바후타의 주민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시위를 벌이며 교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 몇 명이 철 십자가를 세웠고, 처음에는 수천 명이, 그리고 마침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1969년 4월 27일에 상황이 고조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술에 취한 근로자 몇 사람을 선동해서 십자가를 철거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여성들이 십자가를 지키며 막아섰습니다. 울음과 비명이 커지자 남자들이 도우러 달려왔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몰려왔고, 도시가 폐쇄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그 가운데 몇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는 하느님을 원한다!”라고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당시 크라코프 보좌주교였던 카롤 보이티와 주교를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카롤 보이티와 주교는 이후에 위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되어 교회사에 남게 됩니다. 카롤 보이티와 주교와 노파후타에서 혹독한 추위에도 야외에서 미사를 집전했던 요제프 고르질라니 신부가 1965년에 이미 교황 바오로 6세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베드로 사도 무덤



에서 가져온 돌 하나를 개인적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돌을 폴란드로 가져가 그 위에 노바후타 교회를 세우시오.” 이 일은 이후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관청 측에서의 온갖 횡포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끝난 후 다시 공사장에서 빠 빠지게 일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ACN에서 약 3억 원 이상을 지원한 덕분에 성당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7년 5월 15일에 7만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사이 추기경이 된 카롤 보이티와 크라코프 대주교가 교회 축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계 많은 곳에는 신자들이 모여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본당이 너무 가난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라크, 시리아나 레바논,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성당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 어디에서나 ACN이 교회, 수도원, 여타 교회 건물들의 건축과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느님께 기도할 공간이 없는 곳에서도 성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노바후타의 교회 축성식. '주님의 방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주일마다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폭풍으로 경당이 파괴되었을 때 모잠비크 북부 지역인 네티아나테테의 신자들에게 그것은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ACN의 약 1,300만 원 지원으로 복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경당에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신앙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래

에서 기도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은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우리는 주일마다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경당을 훌륭하게 가꿀 것입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보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ACN의 연간 지출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건축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아마 놀랄실 것입니다. 건축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게도 많은 국가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건축물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악의적으로 교회 시설이 파괴된 곳에서도 ACN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원 덕분에 ACN은 끔찍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곧바로 그곳 교회의 물질적 피해를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외형적인 건축물들이 건설한 건축 원칙과 전문적인 관리 감독 아래에 지어져야만 견고하고 내구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건축물의 경우에 그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건축물의 토대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영성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적 후원이 항상 우리 프로젝트파트너들을 위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ACN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제들과 수도자, 교리교사를 위한 세계적 교육 지원도 건축지원과 함께 이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며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

ACN, 2021 연간 보고서 발표

2022년 6월 16일 ACN은 6월 15일 ACN 바티칸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켈던은 “전 세계 23개국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2021년에 총 1억 2,850만 유로(약 1,739억 원)를 지원하였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상세내역

- 총 지출 금액 1억 2,850만 유로(약 1,739억 원)
- 사목활동 연계 지출 82.4%(1억 590만 유로, 약 1,433억 원)
- 모금 및 정보 활동 10.9%(1,400만 유로, 약 189억 원)
- 행정(운영비) 6.7%(860만 유로, 약 116억 원)

사목활동 연계 지출

- 사업 지원 87.6%(9,280만 유로, 약 1,256억 원)
- 정보, 복음화 및 옹호 활동 12.4%(1,310만 유로, 약 177억 원)

- ACN 연간보고서는 PwC의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 환율: 1유로=1353.4원 적용 (2021년 평균환율)

한국지부 우크라이나 기도 캠페인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에서는 절두산 순교성지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와 공동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와 미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장소	미사 집전 사제
8월 13일(토)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정순택 대주교님
9월 13일(화)	절두산 순교성지	구요비 주교님
10월 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염수정 추기경님

※ 오후 2시부터 묵주기도 후,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ACN은 5,298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전 세계 34만 7천명 이상의 후원자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33,124,304 유로(약 1,800억 원)
- 전 세계 132개국의 ACN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을 통해 5,298개의 프로젝트 지원
- 지원비의 82.4% 사목활동 연계 지출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 참여 방법

- 1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 누리집 접속
www.churchinneed.or.kr
- 2 누리집 메뉴에서
기도하기 ▶ ACN 기도캠페인
- 3 이름, 세례명, 연락처, 묵주기도(단) 입력 후, 참여하기 클릭